

〈研究論文〉

韓国語感情形容詞「속상하다」の使用様相についての考察

亀井 みどり

【要旨】

本稿では、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感情形容詞研究の一環として、辞書で提示している語義や訳語だけでは理解しにくい感情形容詞「속상하다」を対象に用例を分析し、1) 使用される形、2) 使用される状況、3) 共に用いられる表現の三点について考察した。朝鮮日報オンラインニュースの検索を通して得た用例計 230 例を分析した結果、「속상하다」は終結形の語尾が続く形での使用が最も多く、話し手の感情を表す以外に、疑問文で聞き手の感情を尋ねたり、「속상해하다」の形で第三者の感情について述べる用法もあった。また、「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状況には、「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できごとが起きた状況」という共通点があり、大きく「自身に関わる状況」と「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の二つに分類された。加えて「속상하다」は、悲しみや悔しさによる「涙」を流す状況で用いられる傾向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

キーワード：韓国語学習、語彙習得、辞書、用例、状況

1. はじめに

本稿の目的は、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感情形容詞研究の一環として、「속상하다」の用例を分析し、使用様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

「속상하다」は、「心中、胸中」という意味を持つ「속」と「傷つく」という意味の「상하다」が組み合わさってできた形容詞で、韓国語母語話者が日常的に用いる感情形容詞の一つである。¹ しかし、「嬉しい」「楽しい」「悲しい」などのような感情形容詞とは異なり、日本語の形容詞には一致する単語がないため、韓国語学習者がその正確な意味を理解し使いこなすの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² また、学習言語を使う際、学習者が最も頼りにするのは辞書に示されている情報であるが、本稿で対象とする「속상하다」については、辞書に提示されている情報に問題点が見受けられる。一例として、『小学館韓日辞典』では「気に障る、腹が立つ」という訳語を提示しており、『エッセンス韓日辞典』では、「癪にさわる、気がくさる、気にさわる、気を病む」としている。³ これらの訳語だけを見ると、「속상하다」が「怒り」の感情を表す形容詞であるという印象を受け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しかし、「속상하다」の実際

の使われ方を観察してみると、涙のイラストと一緒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も多く、「怒り」よりも「悲しみ」に近い感情を表す際に使われる語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このような辞書の訳語と実際の用法のずれは、韓国語学習者が「속상하다」という語を使用する上での混乱につながりかねない。

これまでの感情形容詞「속상하다」に関する研究は、大きく二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一つは、感情形容詞の語彙リスト作成と感情の種類を基準にした分類を試みる中で「속상하다」を扱っているもので、최석재 (2008)、홍종선・정연주 (2009)、문금현 (2012)、손선주・박미숙・박지은・손진훈 (2012)、가메이 미도리 (2015) などが挙げられる。⁴ しかし、これらの研究では語彙リスト作成に重点が置かれており、「속상하다」の使い方については分析されていない。もう一つは、類義語の使い分けを明らかにする研究の一環として「속상하다」を扱っているもので、한혜정 (2018) がある。한혜정 (2018:82~84) では、「속상하다」と「괴롭다」を比較し、どちらも「부정적인 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힘든 상태 (否定的な出来事により心が楽でなく辛い状態)」という共通要素を持っており同一文脈で置き換えが可能であるが、「속상하다」に比べ「괴롭다」の方が心情的に辛く苦痛である感情の程度が大きい、という分析結果を示している。しかし、한혜정 (2018) では、類義語の使い分け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ため、「속상하다」の具体的な使い方までは示されていない。

以上のように、これまで「속상하다」を扱った研究はあるものの、「속상하다」が具体的にどのように使われるの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研究は、管見の限り見当たらない。したがって、用例分析を基に「속상하다」の使用様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韓国語学習者が「속상하다」という感情形容詞を正確に理解し使うための一助になると考える。

本稿では、まず第2章で、「속상하다」が1) 使用される形と2) 使用される状況、3) 共に用いられる表現の点から用例を分析し、第3章で、用例分析を通して得られた「속상하다」の使用様相を考察する。

2. 「속상하다」の用例分析

この章では、「속상하다」の用例を、使用される形、使用される状況、共に用いられる表現の三つに分けて分析する。

本稿では、「속상하다」の用例を収集するにあたり、韓国の代表的な新聞社の一つである朝鮮日報で提供しているオンラインニュースの検索機能を使用した。⁵ 「속상」で検索された記事のうち、便宜上2018年9月1日から2020年8月31日までに掲載された2年間分の記事152件を対象にした。⁶ 分析の結果、152件の記事の中で「속상」を含む用例は計230例であった。

2.1 「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形

今回収集した用例を、活用形を基準に分析した結果、「속상하다」は、「終結形」「連結形」「冠形詞形」「名詞形」「副詞形」などの語尾が続く形で用いられていた。また、「語根」のみで用いられる形もあった。表にまとめると以下の図1の通り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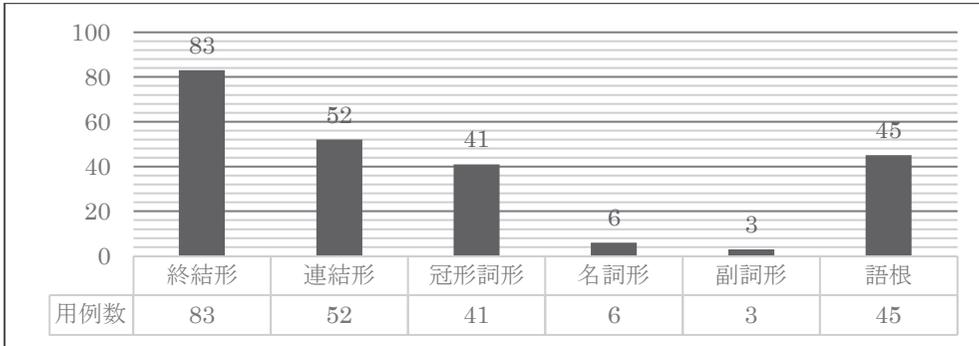


図1 「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形と頻度

上記の図1の通り、「속상하다」には、終結形の語尾が続いた形が83例と最も多く、次いで連結形の語尾が続いた形が52例、名詞を修飾する冠形詞形の語尾が続いた形が41例であった。名詞形や副詞形の語尾が続いた形は少なく、名詞形が6例、副詞形が3例という結果であった。また、語根だけで使われた例が45例と比較的よく観察された。以下でそれぞれ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にする。

2.1.1 終結形

今回収集した「속상하다」の用例で最も多かったのは終結形の語尾が続いたもので、83例であった。以下の用例(1)～(3)のように、「-았/었다」「-았/었었다」「-더니다」などの語尾が比較的よく用いられていた。

- (1) 건강미 넘치는 늘씬한 몸매를 지녔음에도 몸매 지적인 적잖게 받았다는 그는 “평상시 내 키에 정상 체중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후보자들 중에선 내가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더라. 똥똥하다, 예쁘지 않다는 식의 악플을 적지 않게 받아서 속상했다”는 사연을 털어냈다. (2018.12.27, OSEN)
- (2) 김상수는 “오늘 팀이 이겨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9회초에 안 좋게 풀려 속상했었다.다행히 9회말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며 “올 시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선보이며 가을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9.20, 스포츠)

- (3) “아버지에게 동전을 던진 승객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논란만 일어 속상합니다. 정작 이 승객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저희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아들은 19일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2019.02.19, 연합뉴스)

以上の用例 (1) ~ (3) は話し手の感情を表したものであるが、以下の用例 (4)、(5) のように疑問文で聞き手の感情を尋ねたり、(6)、(7) のように「속상해하다」の形で第三者の感情を表すものもあった。

- (4) 라니가 ‘엄마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속상했어’라고 하더라. 짜고 싶어서 다시 시키면 말을 안 하더라. ‘속상했어? 고마워’ 이랬더니 ‘피나지 않았냐’고 하더라. (2018.11.26, 스포츠조선)
- (5) 나훤은 “엄만 대체 뭐가 제일 속상한 거야. 시장 사람들한테 씹을 거리 된 게 속상한 거야? 아님, 내가 안되서 속상한 거야?” 라며 참아왔던 속마음을 터뜨렸다. (2020.05.28, OSEN)
- (6) 관계자는 “절대 성형이나 시술을 한 게 아니다. 실검에 오르고 안 좋은 댓글이 많아서 크리샤 휴가 속상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1.15, 스포츠조선)
- (7) 박사님, 풍년인데 왜 농민들은 속상해하나요? (2019.07.31, 매거진어린이뉴스)

2. 1. 2 連結形

「속상하다」に連結形の語尾が続いた形は 52 例であった。そのうち、以下の用例 (8) ~ (12) のように、「-아/어도」「-(으)는데」「-아/어서」「-았/었는데」などの語尾が続いた例が比較的多く見られた。

- (8) 지난 24 주간 미사초 여학생들을 지도해온 실업배구 미도파 출신의 이성화 코치는 (中略) “요즘에는 아이를 한두 명만 낳고키우다 보니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단체 종목의 아이들은 다르다. 속상해도 참을 줄 안다.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안다”고 했다. (2018.12.13, 스포츠조선)

- (9) 김하영은 “‘개그콘서트’와 8개월 함께 한 제 마음도 이렇게 속상한데 ‘개콘’ 식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웃음을 전하겠다는 열정만으로 살아온 그분들과 또 뒤에서 묵묵히 ‘개그콘서트’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세요”라며 청원을 독려했다. (2020.05.08, OSEN)
- (10) 탑과 김가빈이 식사 자리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에 대해선 “그저 배우들 연기모임에서 친해진 걸로 알고 있고 (中略) 이것저것 과해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연예계인데, 가족이고 언니로서 기사와 댓글 보고 너무 속상해서 말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2020.05.21, 스포츠조선)
- (11) 박결은 “항상 잘하지도 못하는데 외모덕분에 기사 나온다는 댓글을 보고 속상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18.10.28, 스포츠)
- (12) 당시에 대해 어머니는 “속상했지만, 믿고 기다렸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남편하고 산 죄로 소원이기 중국으로 갔다고 생각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0.04.28, 스포츠조선)

2. 1. 3 冠形詞形

「속상하다」가名詞を修飾する形での使用は計 41 例で、以下の用例 (13) ~ (18) のように、「속상한」「속상했던」「속상했을」「속상해진」などの形で用いられていた。被修飾語は、「마음 (14)」が最も多く、次いで「일 (5)」、「것 (3)」、「과거 (2)」、「일화 (2)」の順であった。他に「상황 (1), 순간 (1), 심경 (1), 감정 (1), 사건 (1), 아침 (1)」などがあり、また、「人名 (8)」や「엄마 (1)」なども確認された。

- (13) “회사, 댄사들, 우리도 노력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 그게 아쉽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2019.12.28, 스포츠조선)
- (14) 이번 연말은 여러모로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은 연말이네요. (2019.12.28, 스포츠조선)
- (15) “속상했던 게 꼭 오늘 무대뿐만이 아니다” (2019.12.28, 스포츠조선)
- (16) 박남정은 최근 촬영에서 6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던 과거를 공개, (中略) 당시어머니와 헤어졌던 길을 다시 찾은 박남정은 돌연 속상했던 과거가 떠올라 말문을

잊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 (2019.04.24, OSEN)

- (17) ‘비디오스타’에서 송진우가 비디오스타 녹화 당시 속상했던 일화를 밝힌다.
(2020.08.12, 뉴시스)
- (18) 손흥민(토틸)이 26일 토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에스턴빌라전 극장골, 멀티골, 풀타임 활약 직후 팔 골절 진단을 받았던 순간의 속상했던 상황도 직접 전했다. (2020.03.26, 스포츠조선)

2. 1. 4 名詞形

「속상하다」の名詞形での使用は6例で、以下の用例(19)～(23)のように、「토로하다(吐露する)」や「털어놓다(打ち明ける)」、「감추지 못하다(隠せない)」など、感情の表出を意味する述語と共に使われていた。

- (19) 배우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딸 로아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했다. 9일 조윤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 딸 로아 사진이 SNS에 노출됐고, 기사화돼서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글을 올려요”라고 속상한 심경을 털어냈다. (2018.12.10, 스포츠조선)
- (20) “아이돌,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 구구단 세정과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이 아이돌 선배들의 미묘한 기싸움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했다.
(2019.03.31, 스포츠조선)
- (21) 가수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이 악플에 속상함을 토로했다.
(2020.07.06, 스포츠조선)
- (22) “2월 19일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도 뛰고 싶었다. 2월 22일 첼리전도 뛰고 싶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진을 보고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슬픈 소식이었다”며 팔 골절 진단을 받았던 순간의 속상함을 털어냈다.
(2020.03.26, 스포츠조선)
- (23) 아빠 황의창 씨는 늦둥이 민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친구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상처받았던 일화를 고백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한다.
(2020.04.24, 스포츠조선)

2. 1. 5 副詞形

「속상하다」の副詞形での使用は、以下の用例 (24) ~ (26)、計 3 例のみであった。「속상하게」、「속상케」の形で後ろの動詞「만들다」や「하다」を修飾しており、いずれも「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させる」という意味での使用であった。

(24) 카타르 언론, “손흥민의 한국 속상하게 만들었다”...아시안컵 첫 4 강에 환호
(2019.01.26, OSEN)

(25) 2022 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 대표팀이 한국을 꺾고 4 강에 오르자 카타르 언론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카타르 트리뷴’은 “2022 년 월드컵 개최국이 아부다비에서 4 강에 오르며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두 번이나 우승한 한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1-0 승리를 거뒀다. 하榻의 한 방이 손흥민의 팀을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19.01.26, OSEN)

(26) “잘 나가면 선배?”...구구단 세정 속상케 한 아이돌 후배는 누구?
(2019.03.31, 스포츠조선)

2. 1. 6 語根

今回の用例分析では、「속상하다」の語根「속상」だけが用いられたものも、計 45 例と比較的多く観察された。以下の用例 (27) ~ (32) のように、「속상」は、記事の見出しとして多く用いられていた。⁷

(27) ‘가요광장’ 도경완 “장윤정 돈 보고 결혼했다는 말, 속상” (2019.11.18, 스포츠조선)

(28) 유승호 “일부러 증랑했는데, ‘관리 안 하나’는 반응 속상” (2020.05.12, 스포츠조선)

(29) 신아영, 방탄소년단 향한 팬심 고백 “콘서트 취소돼 속상” (2020.05.21, 스포츠조선)

(30) 산다라박 “밥은 굶어도 옷은 산다 마인드.. 母 속상” (2020.06.17, 스포츠조선)

(31) “귀도 살 찼나? 그냥 비호감” 홍선영, 막말+외모 비하 악플에 속상 (2020.07.06, 스포츠조선)

(32) 오하영 “‘FC 루머’ 탈퇴’ 남성팀과 연애 오해 속상” (2020.08.12, 뉴시스)

また、以下の用例 (33)、(34) は、SNS 上のコメントやメッセージとして書かれたものが引用されたものであるが、「속상」を重ねた「속상속상」の形で感情を強調した使用もあった。

(33) 우리는 ‘#완전부자된느낌’을 덧붙이며 절친인 채리나가 보내준 선물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채리나는 “손소독제 티슈가 안가져서 속상”이라는 댓글을

덧붙여 훈훈함을 더했다. (2020.04.02, 스포츠조선)

- (34) 6일 오후 서우진의 인스타그램에 모친은 “드라마 영상 올리는데 계속 차단 돼서 속상속상. 서우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0.04.06, 스포츠조선)

2.2 「속상하다」가使用される状況

次に、「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状況を分析した。⁸ その結果、「속상하다」は様々な状況で用いられていたものの、「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できごとが起きた状況」で生じる感情を表すという共通点があり、大きく、「自身に関わる状況」と「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の二つ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自身に関わる状況」は、さらに「病気や老いが原因で体が思うように動かない状況」、「希望に反する変更や中止が生じた状況」、「希望に反する報道がされた状況」、「誤解や誹謗中傷を受けた状況」、「期待通りにことが進まない状況」に分けられ、「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は、「大切に思う存在の怪我・心身が心配される状況」、「大切に思う存在が不利益を被ったり、願いが叶わない状況」に分けられた。以下でそれぞれの具体的な用例を見ていきたい。

2.2.1 自身に関わる状況

2.2.1.1 病気や老いが原因で体が思うように動かない状況

以下の用例(35)は、舞台女優が闘病しながら舞台に臨んだことを振り返っているインタビュー内容であるが、自分の気持ちと反して体が思うように動かず、最善の状態で臨めないことに対して当時の感情を「속상하다」で表している。また、(36)は、中堅の歌手が、若かった以前とは異なって体力回復に時間がかかり、声も思うようになくなったことについて「속상하다」を用いて感情を述べている。

- (35) 몸이 아프니까 목소리가 바뀌고, 근육을 쓰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작품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속상했었죠. (2020.08.24, 뉴스시스)

- (36) 임창정은 “목소리가 옛날 처럼 나오지 않는 것을 느낀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中略)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 몽글몽글하고 탄탄한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속상하기는 한데 (2018.09.19, 스포츠조선)

上記(35)、(36)を見ると、「속상하다」は、病気や老いなどが原因で、体が思うように動かない状況で生じる感情を表す際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

2.2.1.2 希望に反する変更や中止が生じた状況

また、「속상하다」は、以下の用例 (37) ~ (39) のように、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して、予定されていたことが変更になったり、中止になった状況で用いられている。

- (37) 손나은도 자신의 SNS 에 “열심히 준비한 무대 끝까지 다 못 보여드려서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2019.12.28, 스포츠조선)
- (38) “예약해둔 숙소는 취소해야겠다. 예약금이 아깝지만 방법이 없지 않냐”며 “6 개월, 세 살, 일곱 살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서 3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오랜만의 여행 일정이 다 틀어져 속상하다”고 말했다. (2019.11.19, 뉴시스)
- (39) 김영광은 31 일 자신의 SNS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16 일 예정이었던 팬미팅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라며 “팬분들과의 약속이라 취소결정을 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힘든 결정을 했어요”라고 이유를 밝혔다. (2020.01.31, OSEN)

上記 (37) では、音楽番組に出演した歌手が、制作陣側のミスのために、準備した舞台を全て見せら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속상하다」と述べている。(38) では、ストライキによる列車運行の変動で、旅行日程を全て変更せざるを得なくなってしまった市民が「속상하다」と話している。また、(39) では、コロナ禍の影響により、ファンミーティングの延期が決まったことを俳優本人がファンに伝える中で、「속상하다」と述べている。特に、(39) では「부득이하게 (やむを得ず)」という表現が用いられており、本人の希望に反していることが明示されている。

2.2.1.3 希望に反する報道がされた状況

「속상하다」は、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報道がされた状況でも用いられている。以下の用例 (40) は、俳優本人が結婚報告をする前に、記事で報道され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当惑しながら「속상하다」と表現している。(41) は、母親が芸能人であることを隠して芸能活動をしていたが、記者によって公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その当時の感情を「속상하다」を用いて表している。また、「본의 아니게 (本意でなく)」や「의도치 않게 (意図せず)」という表現と共に用いられており、どちらも、本人の希望に反した状況で生じる感情であることがより明確に表されている。

(40) 결혼 소식이 알려진 후 오종혁은 팬카페를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자필 편지 속 오종혁은 “나! 장가간다! 이렇게 소리치고 직접 축하 받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기사로 먼저 소식 듣게 했다”며 “저도 당황스럽고 **속상하지만**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을** 당신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 드린다. 미안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2020.02.05, 스포츠조선)

(41) 그에게 댓글을 읽어보는지 묻자 “댓글을 전혀 안 읽는다. 궁금할 때가 많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데뷔 초 엄마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기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밝혀져서 **속상했다고**. (2018.09.20, 스포츠조선)

2. 2. 1. 4 誤解や誹謗中傷を受けた状況

また、「속상하다」は、誤解や誹謗中傷を受けた状況でも用いられている。以下の用例(42)では、歌手と結婚したアナウンサーが、お金目当てに結婚したと誤解されて多くの攻撃を受けたことに対し「속상하다」と述べている。また、(43)では、恋人がいるとファンたちに誤解されたアイドルグループのメンバーが、実際は恋愛していない期間が長く、「ただでさえ속상하다なのに」と述べている。

(42) 도경완은 “제가 결혼하고 많은 공격을 받아 **속상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게 돈 보고 결혼했다는 거였다.” (2019.11.18, 스포츠조선)

(43) 규현은 15 일 오후 자신의 SNS 에 “오해를 하고 있는 팬들이 계신 것 같은데 스페셜영상의 여자 분은 뮤직비디오 출연하신 여자 모델”이라며, “이 분 심지어 촬영 때 마주친 적도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팬들 사이에서 오해가 불거졌고, 규현이 팬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 특히 규현은 “나 연애 안 한 지 엄청 오래 돼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외로워. 외롭다고. 연애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도 안 나”라고 덧붙여 웃음을 줬다. (2019.11.18, 스포츠조선)

2. 2. 1. 5 期待通りにことが進まない状況

「속상하다」は、期待通りにことが進まない状況でも用いられている。以下の(44)は、ドラマの一場面についての状況説明であるが、相手が告白してくれることだけを待っているのになかなか告白してくれないので、「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ったと書かれている。また、「기대와는 달리 (期待とは異なり)」という表現と共に用いられており、本人の希望に反した状況で生じる感情であることがより明確になっている。

(44) 오진심은 권정록이 자신에게 고백해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권정록은 오진심의 기대와는 달리 고백을 하지 않았고, 속상해진 오진심은 술에 취해 권정록에게 전화를 걸어 취중 고백을 쏟아냈다. (2019.02.28, 스포츠조선)

ここまで見てきた用例は、「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できごとが起きた状況」であり、かつ「自身に関わる状況」において「속상하다」が用いられたものであった。以下では、「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で「속상하다」が用いられたものを見ていくことにする。

2. 2. 2 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

2. 2. 2. 1 大切に思う存在の怪我・心身が心配される状況

以下の用例 (45) ~ (48) は、大切に思っている存在が怪我をした状況で生じた感情を「속상하다」で表したものである。

(45) 첫째 딸...선훈이가 아빠가 배우라는 걸 알고 있고 되게 좋아한다. KBS2 ‘왜 그래 풍상씨’에서는 맨날 얻어맞는 역할로 나와서 속상한지 절대 안 봤는데 이번 MBC ‘두 번은 없다’는 말끔한 이미지에 항상 웃는 인상으로 나와 정말 좋아하고 잘 챙겨보더라. (2020.08.18, 스포츠조선)

(46) ‘송다예는 결혼식을 앞두고 눈을 다쳤던 바. 김상혁은 “와이프가 청첩장을 돌리고 다니다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다. 다쳤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상혁은 신부가 부은 게 보여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2019.04.16, OSEN)

(47) 윌리엄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굿모닝~ 제 눈 보고 좀 놀라셨죠? 제가 얼마 전 놀다가 눈 주위를 좀 다쳐서 밤탱이가 됐다가 지금은 좋아졌네요~ (中略)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윌리엄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모 마음 찢어져”, “이모 속상했어”, “아프지마 우리 천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20.07.02, 스포츠조선)

(48)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유리 조각들과 피투성이가 된 지선우의 팔과 얼굴을 보며 속상해한 김윤기. 섬세하게 상처를 치료해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일 때는 그가 상대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절로 느껴지게 했다. (2020.05.09, 스포츠조선)

上記 (45) では、俳優をしている父親が娘について話す中で、殴られる役で出演していたドラマの時は、娘が「속상하다」という感情のためか絶対に見なかったが、今回の役は

いつも笑っている印象なので喜んで見ていると述べている。(46)では、結婚式を目前に控えた新婦が目を怪我してしまい腫れて見えることについて、新郎が「속상하다」と述べている。(47)は、リアリティ芸能番組に登場してお茶の間の人気を集めている子どもが怪我をし、怪我をしたことがわかる写真を見た視聴者たちが心配してコメントを書いたものであるが、その感情を「속상하다」を使って表している。(48)はドラマのあらすじを書いたものであるが、血だらけになった友人の腕と顔を見て、心配しながら治療する登場人物の感情について「속상하다」を用いて表している。

また、「속상하다」は、以下の用例(49)、(50)のように、大切な存在の心身の状態が心配される状況でも使われている。

(49) 산다라박은 “최고의 쇼핑 요정”으로 지목된 뒤 “나도 나를 지목하겠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배웠다. ‘밥은 굵어도 옷은 산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 어머니가 속상해하신다”고 고백했다. (2020.06.17, 스포츠조선)

(50) “힘들 때는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속상해할까 봐 못 했다.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아는 거 같았다” (2019.12.28, 스포츠조선)

上記の用例(49)では、ご飯は食べなくても服は買うという考えを持つ女性が、このような考えを持つ自分に対し、母親が「속상하다」という感情を持っていると話している。(50)では、学業が辛い時に、離れて暮らす母親に連絡したかったが、母親が「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るであろうことを考えると、連絡できなかつたと話している。

2.2.2.2 大切に思う存在が不利益を被ったり、願いが叶わない状況

以下の用例(51)、(52)は、大切に思っている存在が不利益を被ったり、願いが叶わなかつた状況で生じた感情を「속상하다」で表したものである。(51)では、番組スタッフのミスで舞台披露が叶わなかつた歌手が、ファンたちも自分と同じように「속상하다」という感情を持ってくれたと述べている。(52)では、オーディション番組に出演した息子を熱心に応援していた両親が、わずかの差で落選してしまった結果を受けて、「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ったことが述べられている。

(51) 많은 팬분들이 함께 속상해하시고 위로해주셔서 어떤 말씀들 드릴까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9.12.28, 스포츠조선)

(52) 정동수는 “부모님께서 동네방네 투표해달라고 말하고 다니셨다. 그때 36 등으로
한 등수 차이로 떨어졌는데 가족들이 속상해하고 울고 불고 그랬는데 (以下省略)”

(2019.11.22, OSEN)

以上の用例 (45) ~ (52) は、いずれも「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であり、かつ「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できごとが起きた状況」で生じる感情を、「속상하다」で表していると言えそうである。

2.3 「속상하다」と共に用いられる表現

今回収集した用例では、「속상하다」が涙に関連する表現と共に用いられているものが複数あり、「속상하다」の使用様相として特記に値すると判断したため、具体的に見ていくことにする。

以下の用例 (53) では、同時通訳を勉強する過程で、「속상하다」という感情を感じたできごとについて打ち明ける中で、「눈시울을 붉히다 (目頭を赤くする)」という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54) では、本当の私は気弱に行動したり心が折れそうになる時がよくあって、少しでも痛かったり、「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ったりすると「눈물이 차오르다 (涙が込み上げてくる)」と述べている。

(53) 우혜림은 동시통역을 공부하면서 있었던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2020.05.26, 스포츠조선)

(54) ‘진짜 나’는 소심하게 행동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자주 있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속상하면 금세 눈물이 차오르거든. 가끔은 울기 싫을 때도 눈물이 나서 난감해. (2020.07.24, 어린이조선)

また、以下の用例 (55a) ~ (55c) は、「속상하다」が「울다 (泣く)」と共に使われている。(55a) では、苦勞して前売り券を購入したコンサートがコロナのせいで中止になってしまい泣いたと話し、本当に「속상하다」という感情だったと話している。(55b) では、はまっていたドラマが終わってしまい泣いたと話し、親しい友人が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感じがして、「속상하다」という感情だったと話している。(55c) では、女優が、自分の出演したドラマを娘と一緒に見た際、畦道にはまり自転車に乗ったまま倒れる演技を見て娘が泣いていたと話しながら、娘が「お母さんが自転車に乗っていて倒れたので「속상하다」という感情だったと話した」と述べている。

(55a) 신아영은 이번 콘서트도 가기 위해 예때까지 성공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가 아쉽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아영은 “울었다. 진짜 속상했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2020.05.21, 스포츠조선)

(55b) 안은진은 최근 ‘부부의 세계’에 푹 빠져 지냈다고. 그는 “1 회가 방송된 뒤 클립을 보고 곧바로 빠져서 2 회부터는 본방사수를 할 정도였다.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는 울기까지 했다. 친한 친구가 사라진 느낌이었고, 속상했다. (以下省略)
(2020.05.29, 스포츠조선)

(55c) “4 회에 논두렁 빠진 장면을 보고 라니가 울더라. (中略) ‘엄마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속상했어’라고 하더라. (2018.11.26, 스포츠조선)

以下の用例 (56) では、「속상하다」が、泣きわめく様子を表す副詞「울고불고」と共に使われている。オーディション番組に出場した歌手が、1等の差で脱落してしまった結果を受けて、家族が「속상하다」という感情を持ち、泣きわめいたりしたと述べている。

(56) 정동수는 “부모님께서 동네방네 투표해달라고 말하고 다니셨다. 그때 36 등으로 한 등수 차이로 떨어졌는데 가족들이 속상해하고 울고 불고 그랬는데 (以下省略)”
(2019.11.22, OSEN)

以下の用例 (57a)、(57b) では、「속상하다」が「눈물을 흘리다 (涙を流す)」という表現と共に使われている。(57a) では、現在闘病している昔の仲間に会いに行った場面であるが、具合が悪いという話を聞いて「속상하다」という感情だったと話し、実際に仲間を見た瞬間に涙を流したと記されている。(57b) では、6歳の時に母親と生き別れた過去を公開した歌手が、当時母親と別れた道を久しぶりに訪れ、「속상하다」という感情を感じた過去が思い出され、涙を流したと書かれている。

(57a) 투병 중인 양지운을 만나기 위해 1970~80년대 성우계의 전설인 배한성과 송도순이 뭉쳤다. 송도순이 “양지운이 아픈 건 말이 안 된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했었다”라며 양지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자, 양지운은 “아파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며 파킨슨병을 알게 된 후 갖게 된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2019.08.06, 스포츠조선)

(57b) 박남정은 최근 촬영에서 6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던 과거를 공개, (中略) 당시 어머니와 헤어졌던 길을 다시 찾은 박남정은 돌연 속상했던 과거가 떠올라 말문을 잇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 (2019.04.24, OSEN)

また、以下の用例 (58) では、「속상하다」が「눈물을 쏟다 (涙をこぼす)」という表現と共に使われている。(58) では、義祖母の愛情を一身に受けている女性秘書に嫉妬を感じた孫

嫁が、泣きながら自分の感情を話す場面である。秘書が義祖母の恩人であり、良い人であることもわか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これほど「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るのか自分でもわからないと話しながら、涙をこぼしたと書かれている。

- (58) 박금병은 김도란과 커플 목걸이까지 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마뜩찮게 지켜본 건 오은영(차화연 분)과 장다야(윤진이 분)이었다. 박금병의 며느리인 오은영과 손자 며느리인 장다야는 자신에게 와야 할 애정이 김도란에게 가는 것을 보며 은근한 질투심을 느꼈다. (中略) “난 대체 뭐냐. 김비서는 할머니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고 할머니 구해준 은인이고.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2018.11.11, OSEN)

以下の用例 (59) では、「속상하다」が「울상을 짓다 (泣きべそをかく)」という表現と共に使われている。(59) では、おばあさんたちへのキムチの配達を手伝った5歳の子どもが、途中でキムチをひっくり返してしまい、泣きべそをかいたと説明されている。また、そのできごとによって「속상하다」という感情になり、おばあさんが出してくれたトウモロコシを食べながら申し訳なさを隠せなかったと書かれている。

- (59) 승재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들에게 김치를 배달해 감동을 안겼다. (中略) 배달 도중 김치를 엮어 울상을 짓기도 했다. 김장 김치를 엮어 속상해진 승재는 할머니가 내어주신 옥수수를 먹으면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8.11.25, OSEN)

以上の用例 (53) ~ (59) のように、「눈시울을 붉히다 (目頭を赤くする)」、「눈물을 흘리다 (涙を流す)」、「눈물이 차오르다 (涙が込み上げてくる)」、「눈물을 쏟다 (涙をこぼす)」、「울상을 짓다 (泣きべそをかく)」、「울다 (泣く)」、「울고불고 (泣きわめく様子を表す副詞)」など、涙ぐむ程度のものから号泣に近いものまで程度には差があるものの、「속상하다」が「涙を流す」状況で使われる傾向が見られた。一般的に涙を流す際の感情としては、「悲しみ」や「喜び」、「悔しさ」、「感動」、「驚き」などが考えられるが、(53) ~ (59) の用例での涙は、文脈から判断すると、「悲しみ」あるいは「悔しさ」に近い感情による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つまり、悲しみや悔しさの感情による涙を流す状況で、「속상하다」が共に用いられているといえる。

3. おわりに

本稿では、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感情形容詞研究の一環として、辞書で提示している語義や訳語だけでは正確な意味を理解して使いこなすことが難しい感情形容詞「속상하다」の使用様相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朝鮮日報が提供しているオンラインニュースの検索を利用し、計 230 例の用例を分析した。「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形、「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状況、「속상하다」と共に用いられる表現の三つに分けて分析した結果、以下のような特徴を見出すことができた。

- 1) 「속상하다」は、「終結形」、「連結形」、「冠形詞形」、「名詞形」、「副詞形」などの語尾が組み合わさった形がそれぞれ使われていた。特に、終結形の語尾が続く形が最も多く、話し手の感情を表す意味での使い方であったが、それ以外に、疑問形で聞き手の感情を尋ねたり、「속상해하다」の形で第三者の感情について述べる使い方もあった。冠形詞形では、「마음(心)」を修飾する用例が比較的多いことがわかった。名詞形「속상함」での使用は多くはなかったが、「토로하다(吐露する)」や「털어놓다(打ち明ける)」、「감추지 못하다(隠せない)」など、感情の表出を意味する述語と共に使われていた。加えて、記事の見出しや SNS 上のコメントでの限定的な用法ではあるが、「속상하다」の語根「속상」の形でも使われていた。
- 2) 「속상하다」が使用される状況について分析したところ、「感情の主体の希望に反するできごとが起きた状況」という共通点があった。これらは、大きく「自身に関わる状況」と「大切に思う存在に関わる状況」の二つに分類され、さらに、「病気や老いが原因で体が思うように動かない状況」、「希望に反する変更や中止が生じた状況」、「希望に反する報道がされた状況」、「誤解・誹謗中傷を受けた状況」、「期待通りにことが進まない状況」、「大切に思う存在の怪我・心身が心配される状況」、「大切に思う存在が不利益を被ったり、願いが叶わない状況」などに細分化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본의 아니게(本意でなく)」、「의도치 않게(意図せず)」、「기대와는 달리(期待とは異なり)」などの表現を用い、話者の希望と反する状況であることをより明確に示している用例があったことは、「속상하다」の意味を理解する上で、注目に値する。
- 3) 「속상하다」の用例の中には、「울다(泣く)」や「눈물을 흘리다(涙を流す)」、「눈물을 쏟다(涙をこぼす)」、「눈물이 차오르다(涙が込み上げる)」、「눈시울을 붉히다(目頭を赤くする)」、「울상을 짓다(泣きべそをかく)」、「울고불고(泣きわめく様子を表す副詞)」などの表現と使われているものがあり、文脈から悲しみや悔しさによる涙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したがって、「속상하다」は、涙ぐむ程度のものから号泣に近いものまで程度には

差があるものの、悲しみや悔しさによる涙を流す状況で、共に使われる傾向があるといえる。

以上の結果は、限られた用例を通して得たものであるため、これ以外の状況がないことを主張できるもの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用例分析から得られた情報は、学習者が「속상하다」の意味を正しく理解し使用する上で一定の価値を持つと考える。今後、用例の幅をさらに広げた分析を進め、学習者用の辞書などにおける、よりわかりやすい記述を模索したい。

【注】

- ¹ 「속상하다」が日常的に用いられる感情形容詞であることがわかる一例を挙げると、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 NATE (nate.com) では、ニュース記事に対し読者が感情を表す「共感ボタン」を提供しているのだが、「최고예요」、「훈훈해요」、「어이없어요」、「화나요」と並び、「속상해요」が用いられている。それぞれに表情のアイコンが添えられており、「속상해요」は涙を流している表情になっている。매일일보 2020年8月27日付の記事「네이트, 스포츠 뉴스 댓글 잠정 중단…공감 버튼 마련」によると、この「共感ボタン」は、従来使用されてきたコメント欄に代わるものとして2020年8月27日より提供が始まったものだという。(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1330 閲覧日：2020年9月23日)
- ² 韓国の代表的な国語大辞典で提示している「속상하다」の語義を見ると、『표준국어대사전』では「(...이)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따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と定義しており『고려대 한국어대사전』では「1. (사람이 일이나 행동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 2. (사람이)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따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と定義している。(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284a21e80242c9b5a846956b774b06 閲覧日：2020年8月31日)つまり、『표준국어대사전』と『고려대 한국어대사전』では共通して、「속상하다」を「怒り」や「心配」などによって「心地悪く憂鬱だ」という心の状態を表す形容詞であるとしているのだが、「怒り」や「心配」と「憂鬱」といった複合的な感情を表現する単語が、日本語にはないように思われる。
- ³ https://ja.dict.naver.com/#/entry/koja/ab96a67b158b4349b46a8cf2e58c4662 (閲覧日：2020年9月23日)
- ⁴ 感情形容詞の分類を見ると、최석재 (2008) では「속상하다」を‘Anger (분노)’に分類しており、홍중선・정연주 (2009:418) では「속상하다」を「혐오 (嫌惡)」に分類している。손전주・박미숙・박지은・손진훈 (2012:116) では、大学1~3年生80名の認識調査結果を基に「속상하다」を「슬픔 (悲しみ)」のカテゴリーに分類しており、문금현(2012)では「속상하다」を「否定的な感情表現語彙」のリストに入れている。また、가메이 미도리(2015)では、国語大辞典で提示している語義を基準に「속상하다」を「哀系・괴로움 (苦しみ)」のカテゴリーに分類している。このように「속상하다」は、研究によって異なる感情のカテゴリーに分類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のだが、これらの違いは、「속상하다」が複合的な感情を表しうる形容詞であることを示唆するものと捉えることもできる。
- ⁵ 本稿では、朝鮮日報で提供している「조선일보 -1 등 디지털뉴스 https://www.chosun.com/ (閲覧日：

- 2020年8月31日)の検索機能を利用した。新聞社で提供しているオンラインニュースの検索機能を使用して用例を収集した理由は、ニュース記事には一般大衆の発言が多く引用されており、その中で使用された「속상하다」の用例を収集できるためである。また、記事全体を閲覧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全体の文脈が把握しやすく、掲載日時を基準にし、より最近の用例を分析できるためである。
- 6 2020年8月31日の検索では、「속상」で検索した結果、計985件の記事が検索された。今回は「속상하다」という感情が生じる状況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ため、便宜上、比較的最近の2年間の記事に絞り、同じ内容かつ同じ文面が用いられていると判断した記事は代表の1件のみを分析対象とした。
- 7 ただし、「속상하다」の語根「속상」の使用については、「속상하다」に限った使われ方ではないようである。이란희 (2012:26)では、新聞記事の表題語について、「簡潔でリズムがあり、最も短い形式の中で最も多くの意味を込められるように作られる」とし、中でも「題名は、何よりも簡潔さを追求するために述語が省略されるなど、形態的な面で一般の文章とは違う」と指摘している。また、新聞記事のタイトルの他に、チャットやツイッターのような通信言語、バラエティ番組の字幕などで、終結語尾を省略した形で用いられる傾向にあることが、이정복 (2001), 김선화 (2013), 이충규 (2015)などで報告されている。
- 8今回収集した用例のうち、文脈を通して「속상하다」の感情が生じるに至った状況が明確なものを中心に傾向を分析した。

【参考文献】

- 李河恩 (2019), 「現代新聞の「うれしい+名詞」表現における感情惹起のパターン」, 『阪大日本語研究』第31号,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語学講座, pp.73~88.
- 金城克哉 (2009), 「形容詞述語文についての一考察 (2): 「うれしい」の誘因について」, 『研究論文集—教育系・文系の九州地区国立大学間連携論文集—』 Vol.3, No.1, 琉球大学, pp.1~21.
- 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 編 (2018), 『韓日辞典』, 小学館.
- 가메이 미도리 (2015), 「韓國語와 日本語의 感情形容詞 比較 研究-‘기쁨’과 ‘슬픔’의 感情形容詞를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강현화 (2011),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제47호, 이중언어학회, pp.453~479.
- 김선화 (2013), 「통신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문장 종결방식 연구-트위터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화 (2004), 『우리말 형용사 유의어 의미 연구』, 한신문화사.
- 김정현 (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고빈도 감정 어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 (2012),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 제22호, 시학과 언어학회, pp.175~200.

- 손선주·박미숙·박지은·손진훈 (2012), 「한국어 감정표현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감성과학』 15-1, 한국감성과학회, pp.105~120.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란희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태어 교육 방법」,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 (2001),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 『우리말 글』 제 22 집, 우리말글학회, pp.123~151.
- 이지혜 (2006),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 -언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규 (2015),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관한 한일 대조언어학적 연구」, 『日本語學研究』 第 43 輯, 한국일본어학회, pp.129~149.
- 최석재 (2008),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pp.127~159.
- 한혜정 (2018), 「한국어 중급 학습자 대상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선·정연주 (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pp.387~420.

A Study on the Usages of Korean Emotional Adjective '속상하다 (soksanghada)'

Midori Kamei

Abstract

As part of the study of emotional adjectives for Korean learners, this paper considered the use of the word '속상하다'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nly by the meanings explained in the dictionary. We analyzed 230 examples obtained through the articles provided by The Chosun Ilbo, by three points: the form, the situation, and the expression used toge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속상하다' is most often used in the predicative form expressing the emotions of the speaker. Also, it is used to ask the emotions of the listener in an interrogative form, or to describe the feelings of others in the form of '속상해하다'.
- 2) '속상하다' is used in situations where something goes against the wishes and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 situation related to oneself' and 'a situation related to someone important'.
- 3) '속상하다' tends to be used in the situation of crying.

Key words: Korean language learning, vocabulary acquisition, dictionary, usage, situation